



## 한국불교세계화를 위한 국제포교네트워크 강화

### 2012년 사회부 국제팀 업무 계획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1월 1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불기 2556년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올해 종단 운영 기조와 방침을 발표하고, 임진년 한 해 동안 '자성과 쇄신', '한국불교 중흥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 등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국불교 세계화를 위해 세계불교도대회 한국대회의 성공적 개최, 룸비니 보존계획 동참, 국제불교 학교 운영 및 외국인 수행자 연수, 해외특별교구 설립 및 활성화 지원, 전통사상서 번역사업, 사찰음식 및 템플스테이 추진 등을 펼쳐나간다는 구상이다.

이에 사회부 국제팀은 올해 종단의 운영 기조에 발맞추어 '한국불교의 세계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및 활동을 강화하고, 국내 외교 및 문화적 인력과의 조직력을 확대하며 한국 불교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사업을 연계하고 확대할 계획이다. 첫 번째 한국불교의 세계화 추진을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서 종단 내외 정책토론회 및 유관단체, 인물 등의 협조를 끌어낼 계획이다. 또한 장기적인 로드맵을 만들어 국제 업무 추진의 기초를 수립하고, 해외업무 편람을 제

작하며, 종단문장(대한불교 조계종,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의 해외 특허를 위해 지원 협력한다. 두 번째 국내 외교 및 문화적 인력과의 조직력 확대를 목표로 국내 각국 대사(영사관) 및 문화원 실무자 정례회의 및 템플스테이를 개최한다. 또 국내외 국제업무 인재네트워크를 확립하며 해외 스님 초청 및 파견에 대한 체계적 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한국 불교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사업 연계를 확대한다. 국제불교학교, 외국인 행자교육 등 종단국제인력 양성업무와 해외교구운영 협력사업을 지원한다. 더불어 'WFB'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지역 사찰과 연계하며 그에 따른 국제업무 및 포교사업을 협력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한국불교 및 불교문화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날로 커지고 한국불교 소개를 위한 포교자료의 체계적인 보급이 절실해짐에 따라 조계종 홈페이지를 개편, 효율적인 관리를 추진한다. 또한, 한국불교 홍보체제 구축 및 국제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웹진과 애플을 개발해서 보다 효율적인 온라인 보급방식 활용을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자료제공\_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사회부 국제팀



### '2012 세계불교도대회' 40개국 불교지도자 모여 "한국불교 전통·문화 세계에 알릴 기회"

오는 6월 11일부터 세계 40여 개국 불교인들이 모이는 '2012년 제26차 세계불교도대회'가 열린다. 이번 세계불교도대회 한국대회는 회원국 40여 개국 불교지도자 1,000여 명을 포함해 총 10만여 명이 한자리에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대회는 세계 불교인들에게



1,700년의 유구한 세월을 이어온 한국불교의 전통과 문화를 선보일 좋은 기회이다. 행사에서는 세계 각지의 불교 지도자들이 한데 모여 인류의 정신적 좌표와 세계평화, 환경보전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주요 행사로는 개회식에 이어 학술 포럼 및 보살계 법회, 세계불교비즈니스 포럼, 한국문화 체험, 노래와 춤을 곁들여 종합무대극으로 꾸며지는 수록재 등이 봉행된다. '21세기 불교생태환경사상과 수행'을 주제로 진행되는 학술 포럼에는 세계적으로 저명한 학자들이 참여해 토론할 예정이다.

6월 14일 열리는 세계불교 비즈니스 포럼은 불교 콘텐츠를 활용한 특화사업들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이다. 조직위원회는 올해 '불교영화', '대만불교의 성공요

인', '룸비니프로젝트', 명상으로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힐링 투어'를 어떻게 상품화하고 활용할 것인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광사, 화엄사 등 전통사찰 탐방도 한다. 참가자들은 한국전통사찰 음식을 맛보고 공연을 관람할 예정이다. 이번 대회에서는 제26차 세계불교도우의회총회와 제17차 세계불교청년우의회 총회, 제9차 세계불교대학회의가 함께 열린다. 티베트불교 등 세계 고승들이 직접 수계를 하는 행사도 있다.

WFB 한국대회 집행위원장 진옥스님은 "한국불교의 위상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라며 부처님의 가르침과 사상을 통해 '세계 인류평화'를 도모하는 축제의 장을 연출하고 싶다고 말했다.

### 중앙종회 '티베트 탄압 중단 촉구' 성명 발표

티베트의 독립과 종교의 자유를 촉구하는 소신공양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조계종 중앙종회가 중국 정부의 티베트 탄압 중단을 촉구했다. 대외(사회분과)·주경(총무분과)·법안(교육분과)·조격(호법분과)스님 등 중앙종회 상임분과위원장들은 2월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티베트 사태에 대한 조계종 중앙종회 상임분과위원장 입장'을 발표했다. 상임분과위원장들은 성명에서 "1951년 티베트를 강점한 중국정부는 60



여 년 동안 120만 명에 이르는 티베트인들을 죽음으로 내몰았으며, 종교 탄압 정책을 통해 티베트인들의 자유와 정신을 억압하고 있다"고 중국 정부를 비판했다.

이어 "현재 티베트에서는 소신공양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자유와 독립을 요구하는 시위가 진행되고 있으며, 24명의 승려와 국민들이 소신공양하고 수많은 국민들이 목숨을 건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이어 소신을 단행한 이들의 신병 양도와 주둔 군대의 조속한 철수, 양심수 석방, 승려에 대한 충성 강요 행위 및 강제 이주 정책의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또한 조계종 총무원을 비롯한 한중일 불교 대표단에게 티베트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문 채택과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 바라밀을 실천하는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

▼ 파라미타, 미얀마 봉사활동

1996년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은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를 설립했다. 파라미타는 청소년들에게 맑고 밝은 심성을 심어주기 위한 활동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다. 또한 내면의 성찰을 통해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고, 민족의 훌륭한 전통문화를 바르게 이해하여 이에 대한 소중한 의식을 키워나가, 옛 선인들의 정신 수양을 오늘에 되살려 청소년들에게 전해주고 이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해왔다. 파라미타는 서울을 비롯한 전국 16개 광역시와 도에 지역협회가 결성되었고, 사찰과 학교에서 파라미타 분회조직으로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파라미타는 보살의 수행덕목인 바라밀다(波羅蜜多)의 인도식 표기(범어)로 어둠의 언덕에서 깨달음의 저 언덕으로 건너간다는 뜻이면서 동시에 수행의 완성을 뜻한다. 이는 청소년들이 진리와 자유의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이상을 담고 있으며 청소년들이 사회 속에서 봉사, 수련 등을 해야 할 실천덕목을 말한다. 파라미타의 정신은 생명의 존중, 나눔과 봉사를 통한 자비실천이다. 파라미타는 청소년기뿐만 아니라 세대를 관통하여 이 시대를 향도할 정신문화



를 만들어나갈 것이다.

파라미타는 2003년부터 일본 아시아불교도협회와 청소년 교류활동을 이어오다 2007년 한일 청소년교류 협약을 맺었다. 이후 양국의 청소년들이 쌍방 교차 방문하여 양국의 불교문화를 이해하고 교류의 장을 만들어오고 있다. 또한 2008년에는 중국국제청년교류중심과 교류협약을 맺고 2010년, 2012년 한중 청소년 국제교류 및 장보고 해외문화탐방을 실시하였다. 이로

써 중국 산둥성 지역에서 활동했던 우리나라 위인에 대한 이해와 중국 또래 청소년들과의 교류활동을 통해 글로벌 마인드를 형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고 있다.

파라미타는 12월 청소년들의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2005년부터 캄보디아, 미얀마, 스리랑카, 인도 등 동남아 국가에 국제협력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초창기에는 의료진료활동을 병원봉사회 소속 의료진과 함께 하였고, 2010년부터는 동국대학교 일산의

료원 의료진이 의료진료활동에 동참하고 있다. 의료진료활동 외에도 화장실 설치, 교실환경 개선, 학용품, 의약품 지원 등의 활동과 현지 어린이, 청소년들과 한국불교 문화 체험 활동 등을 통해 봉사를 통한 자비나눔을 실천해오고 있다. 해외여행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단순 여행보다는 교류와 만남, 그리고 봉사가 있는 해외자원봉사가 더욱 확대되길 기대한다.

글 파라미타 사무국장 조한근

## 국제불교학교, 미국 연수보고 및 주제발표

국제불교학교는 지난 2월과 3월 5주간에 걸쳐 미국불교연수를 다녀왔다. 3월 5일에는 제2기생 입학식 행사에 이어 2부 순서에 현응 교육원장님과 학교 운영위원장인 법인스님 등 교육원 관계자들과 화운사 대중스님들을 모시고 해외연수보고 프레젠테이션을 가졌다. 인솔자인 교학처장 지정스님의 연수 보고가 있는 후 3명의 학인스님이 3가지 주제로 발표를 했다.

첫번째 주제는 미국의 불교사찰(한국, 중국, 동남아 사찰) 현황이었다. 미국 동부에 있는 워싱턴 지역과 뉴욕시 지역의 한국을 포함한 각 나라 불교사찰들은 대부분 자국민들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2~3세대 어린이와 젊은이들에게 모국어와 자국의 문화를 가르치는 교육기관 역할도 하고 있다. 영어가 가능한 사찰에서는 현지 미국인을 위한 정신적 휴식형 명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미국인을 위한 포교가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젊은 스님들이 미국학교에서 영어를 배울 수 있게 준비하고 있다. 한국의 사찰들은 대부분 스님 한두 분

▼ 교육원장 현응스님의 격려사



이 어렵게 사찰을 운영하고 있는 데 반해 태국 사찰은 일요일마다 5,000여 명의 신도가 운집하며 젊은 스님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맡아서 진행하고, 미국인들을 위한 위빠사나 집중수행 기간을 마련해 놓고 있다. 두 번째 주제는 타종교와의 인터페이스였다. 신학자 폴 니터 교수(유니언 세미너리 대학)처럼 다양한 타종교인들이 선수행을 매개로 모인 까닭에 모임의 이름을 인터페이스 승가(Interfaith Sangha)라고 명명한 이들은 물론 아직 소수이긴 하지만 '이중신앙인(double belonging)'이라 지칭하기도 한다. 이들과의 만남을 통해 불교의 가르침이 타종교인에게 자신의 종교를 깊이 있고 바르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음을 알게 된 것이 가장 인상적이었다. 세 번째 주제는 미국화된 불교의 현주소였다. 각기 자기 문화의 특색을 띠고 있는 각 나라의 사찰들과는 대조적으로 미국인들 사이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불교 단체 세 곳을 미국화된 불교라고 분류해 보았다. 이 세 곳은 미국 전역에 거의 400개에 육박하는 센터를 둔 티베트의 투룽파 린포체가 설립한 삼발라센터, 세계적으로 유명한 틱낫한 스님의 마인드폴리스 수행센터 그리고 일본 선불교의 미국화된 종단인 산수종(山水宗) 사찰 선산사(Zen Mountain Monastery)이다. 이 세 곳은 재가자 중심의 불교수행공동체이며 그들은 삶 속에서 순수하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

## 국제선센터, 국제업무 활성화 위한 TFT 구성

국제선센터 국제국은 총무원 사회부 국제팀과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동참한 '국제선센터 국제업무 활성화'를 위한 TFT를 구성하였다. TFT 1차 회의는 2월 23일 국제선센터에서 열렸으며 안건으로는 △국제선센터 국제업무 인프라 구축 △상주 외국인 및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해외 학술단체 및 해외 선센터와 연계할 수 있는 방법 논의 △국제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인재개발 등이 있었다.

앞으로 국제선센터는 총무원의 핵심사업인 '한국불교세계화'와 국제선센터의 국제적 위상 강화를 위한 사업을 준비하고 있으며 특히, 총무원 사회부 국제팀 및 한국불교문화사업단과 유기적으로 한국불교 세계화에 역량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선센터는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일본인을 상대로 진행하고 있는 33관음성지 순례사업과 연계를 모색하고 있다. 또 최근 폭증하고 있는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 한국관광공사와의 업무협력도 추진하고 있다. 이밖에 개별적인 외국인 여행객 유치를 위해 게스트하우스, 호텔, 공항, 여행사, 대학교, 관공서 등에 리플릿을 비치하는 한편 서울 지하철 모니터에 홍보영상을 상영할 계획이다.

고 있었다.

교무처장 지정스님은 "이번 해외연수는 종교간 상호교류가 다종교사회에서 조화롭고 평화롭게 공존하기 위해 필요하며 또한 한국불교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 생각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국제선센터 주지 법정스님은 2월 9일 신년기자간담회에서 "한국관광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해 150만 명의 중국인들이 숙박 시설 부족으로 한국을 방문하지 못했다"면서 "국제선센터에서는 사찰음식을 직접 만들어볼 수 있을 뿐더러 발우공양, 다도 체험, 선 실참을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만큼 일본·중국인들의 관심을 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앞으로 보다 많은 외국인들을 유치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외국인 수행 및 체험 프로그램도 확대된다. 국제선센터 선원인 금차선원의 운영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상시 간화선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해 외국인들의 참여를 늘려갈 계획이며, 내외국인을 상대로 열고 있는 영어법회인 담마토크를 통해 외국인 네트워크를 구축해 상시적인 커뮤니티를 형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글 국제선센터 김용태 국제주임

고 말했다. 한편 프레젠테이션을 끝까지 지켜본 교육원 부장 법인스님은 "알찬 스케줄로 유익한 연수를 다녀온 것을 알 수 있었으며 학인들이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우고 왔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며 격려했다.

국제불교학교 031-335-2576

# 더프라이스, 화랑미술제와 함께 하는 희망전시회



지난 2월 23일, 국제개발구호단체 더프라이스(The Promise)가 제30회 화랑미술제에서 '희망'을 주제로 한 전시회를 개최하여 대중에게 기부문화를 알리고 더프라이스의 사업지인 미얀마와 동티모르를 홍보하였다.

전시는 동티모르의 아수마노(Acumano)라는 작은 마을에서 어린이가 가지고 놀던 장난감 자동차로 시작된다. 이 작품은 강제육 작가가 캔, 플라스틱 등 재활용품을 모아 동티모르 현지 마을주민과 공동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이 자동차를 일러스트로 재미있게 표현한 김본 작가의 작품은 어린이 방문객들에게 인기가 많았다. 또한 미국에서 활동 중인 양희관 작가는 태양을 향해 달려가는 트럭사진을 준비하였다. 미대륙에서 희망찬 삶을 살아가는 운전사처럼 동티모르의 아이들도 희망과 비전을 갖고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작품을 준비하였다고 한다.

미얀마 편에서는 미얀마 난민촌 메솿의

아동작가들 작품을 전시했다. 아이들은 처음 잡아본 카메라로 흑백사진을 찍어 그 위에 아크릴 물감을 칠해 하나의 작품으로 탄생시켰다. 지난 해 더프라이스의 재능기부 수상자인 문신기 작가의 작품 'Burmese'도 함께 자리하였다. 기부상품으로 제작된 강제육 작가의 핸드드립 드립퍼는 많은 방문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동티모르의 특산품인 커피를 주제로 전통 가옥의 모습을 본떠 만든 수제 도자기이다. 또한 화랑 협회에서 마련한 vip룸에서 커피판매 수익금으로 총 826,140원이 모였고 전시작품으로는 총 3백만 원의 수익금이 모였다.

더프라이스 희망전시회가 함께한 제30회 화랑미술제는 국내 최초의 아트페어로 참가화랑이 작가를 발굴, 지원하여 그들의 우수한 작품을 전시 및 거래하는 종합미술 박람회로 22일에 개막하여 26일까지 진행되었다.

국제구호개발단체 더프라이스 02-735-3119

www.thepromise.or.kr

◀ ① 봄비는 전시회 현장 ② 문신기 작가, burmeses ③ 강제육 작가, 자동차조각 ④ 강제육 작가, 수제 커피드립퍼

## “미얀마 바단마 학교에 화장실을 지원해주세요”

동남아시아의 개발도상국 미얀마는 전 국민의 90%가 불교를 믿는 불교국가이다. 미얀마는 60년대 초반 군사정권의 장기집권으로 경제발전을 멈춘 후 아시아에서 가장 빈곤한 나라로 전락하였으며 인프라, 보건 의료, 교육, 인권 등 사회의 전반적인 분야가 낙후된 나라이다. 무엇보다 교육부문에 대한 정부투자가 이뤄지지 않아, 공교육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기존 시설의 상황도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미래 미얀마를 이끌어갈 아동·청소년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없다.

빈곤퇴치를 통한 미얀마 국민들의 삶의 질 개선, 그리고 경제발전에 있어서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 교육기회의 제공이라는 판단 하에 로터스월드는 2010년 로터스월드 미얀마지부를 설립하고, 교육시설개선 사업에 착수하였다. 로터스월드는 가장 우선적으로 미얀마 양곤지역 웨민모 사원이 운영하는 고아원과 초등학교의 화장실 지원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양곤 지역에 있는 다른 초등학교 및 불교고아원으로 화장실 및 샤워실 등의 위생시설 건립지원사업을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2011년에는 총 5개의 학교와 고아원에 화장실 및 샤워실 등의 위생시설을 지원했다. 로터스월드의 위생시설 지원사업이 미얀마 불교계에 알려지면서 양곤지역 외에도 만달레이 등 다른 지역의 사원들이 운영하는 여러 학교와 고아원들이 로터스월드에 위생시설 건립을 요청해왔다. 이에 로터스월드는 2012년에도 학교와 고아원에 위생시설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을 갖고 미얀마 중부지역 만달레이의 모곡 시에 있는 바단마 초등학교에 화장실건립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로 하였다.

바단마 초등학교는 불교사원이 운영하는 학교로 현재 초등학생 100여 명이 공부하고 있으며 8명의 스님과 6명의 교사를 포함하여 총 120여 명이 하나의 화장실을 함께 사용할 정도로 열악한 상황에 있다. 화장실이 부족하다 보니 쉬는 시간에 화장실 쟁탈전이 벌어지기도 하고, 때로 급한 아이들은 학교 주변에 불 일을 볼 정도로 비위생적인 환경을 감내하고 있다. 아이들이 화장실 때문에 겪는 불편함과 번잡함에서 벗어나 위생적인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바단마 학교에 적어도 1개 동 이상의 화장실이 더 필요하다.

미얀마의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뜻있는 분들의 관심과 지원을 기다립니다.

로터스월드 02-725-4277

후원계좌\_ 신한은행 100-021-108016 (사)로터스월드

## 어꾼찌란, 위드아시아

대부분의 캄보디아 주민들은 집집마다 앞마당에 놓인 항아리에 물을 받아 식수로 사용한다. 우기에는 빗물을 받고 건기에는 집 앞이나 혹은 근처의 웅덩이에서 물을 떠와 항아리에 담아 부유물을 가라앉힌 뒤 마신다. 물이 귀한 마을에서는 식수도 구하기 힘든 상황이라 목욕할 물은 당연히 구하기가 힘들어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목욕을 못해 피부병환자가 많이 발생한다.

지난 2월 9일 캄보디아 뿌레이벵주 끄로웃 마을 주민들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다. 가수 백청강씨의 팬들이 백청강씨의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 위드아시아를 통해 기부한 후원금으로 만든 2개의 우물에서 물이 처음 나오는 날이었기 때문이다. 끄로웃 마을은 그동안 접근성이 좋지 않아 다른 마을과는 달리 우물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하였다. 이번 우물 건립은 건기에 접어들면서 식수를 구하기 힘든 시기에 지원되어 마을 주민들이 깨끗한 물을 사용하고 있다. 끄로웃 마을의 우물은 마을 주민들의 큰 관심 속에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마을 이장 및 주민들이 스스로 관리 책임자가 되



끄로웃 마을 아이들

어 우기에는 수동펌프로 물을 길어 올리고 건기에는 자동펌프를 사용하게 된다. 자동펌프를 사용하게 될 경우, 발전기를 사용하게 되어 유류비가 발생하지만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40원에서 300원까지 부담하여 비용을 마련한다.

앞으로 위드아시아에서는 캄보디아 빈민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깨끗한 식수제공을 위해 마을 공동 우물 건립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자체적으로 관리 책임자를 두어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어꾼찌란 : 캄보디아어로 '고맙습니다'

후원문의\_ 위드아시아 02-3444-8007

후원계좌\_ 농협 355-0004-5196-53 사)위드아시아

인터뷰 - 호주 보리사 보안스님

# 세계가 하나로 어울리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다

송광사 강원 졸업 후 10여 년 동안 호주 의 절 없는 절 보리사에서 찾아나서는 포 교, 현지인 포교를 위해 몸으로 부딪치며 기본부터 하나하나 개척해 가고 있는 보안 스님. 세계일화 3월호는 일상에서 보살행 을 하여 삶 자체가 수행이 되고 포교가 되 는 원력을 실천해 가는 보안스님을 만나보 았다.

### 호주는 왜 가게 되셨나요?

강원을 졸업하고 중국말을 배우면 경전공 부가 쉽지 않을까 해서 대만에 갔었는데 새 로운 세계, 더 넓은 세계에 눈을 뜨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대만에 2년 있다 영어 를 공부하러 뉴질랜드에 갔는데 1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호주에 가게 되었습니다. 내 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람들에게 도 움되는 일들을 찾아서 하다 보니까 호주에 서도 이미 10년에 접어들었습니다.

### 스님의 원력은 무엇입니까?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다 보니 무주상 보

시, 즉 조건 없는 사랑만이 진실한 사랑이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고 그들의 마음을 편 안하게,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것에 내 인 생을 바치자'라는 것이 원력입니다. 한마 디 말이라도 내가 가진 것을 사람들과 나 누려고 합니다.

### 현재 절이 없으시다고요?

4년 전에 보리사로 호주 정부에 사찰로 등 록을 했습니다. 호주는 건물이 없어도 사 찰등록이 가능합니다. 작년부터 '반야원' 이라는 중국절의 스님이 나의 생활을 잘 아는 까닭에 생활비 걱정하지 말고 함께 살 것을 요청해 와 중국 절에서 생활하면 서 토요일 한국인을 위한 법회를 하고 있 습니다. 법당을 함께 쓰고 같이 공양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 어떻게 포교를 시작하게 되셨나요?

유학생들이 많은데요. 부모님들이 마음 놓 고 아이들을 유학 보내고 믿고 맡길 수 있

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호주 에 있는 학생들에게 안전한 공간을 제공해 주고 싶었고 더 넓은 세상을 보여 주고 싶 었습니다. 그러면서 호주인에게는 불교와 한국문화를 알려 줘서 세계가 하나로 어울 리는 세상을 만드는 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려고 개척을 시작한 것입니다.

### 포교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 각하십니까?

포기를 잘할 때 포교가 잘 된다고 생각합니 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상대방을 잘 포용할 수 없습니다. 학생 들과 2~3년 살게 되었을 쯤 포기를 하기 시 작했습니다. 바르다고 생각하면서 학생들 에게 요구했던 것, 어떤 틀 안에 묶어 놓으 려고 했던 그 틀을 포기하기 시작한 거죠. 내가 스님이라는 것까지 포기했습니다. 학 생들과 같은 눈높이, 같은 생각이면 자연히 마음의 삼투압작용이 일어나기 시작합니 다. 친구처럼 가족처럼 같이 살았습니다. 아이들에게 모든 것을 개방하고 살고 있습 니다. 방값이 비싸서이기도 하지만 독방을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나 의 감시자, 도반이자 스승이 되었습니다. 아이들과 같이 살아주고 김치 담가 주고 밥 해 주고 하는 것으로 포교를 대신하고 있습 니다. 그러다 학생들의 마음이 열리면 그때 불교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 해 오더군요.

### 한국인 포교는 어떻게 하나요?

그냥 사람들 사이에서 산다고 할 수 있습니 다. 절에서 사람들을 기다리지 않고 직접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토요일 중국 절에서 한국불자들과 만나 1시간 정도 참선, 경행 하고 수심결을 통해 수행한 것을 점검해 합 니다. 앞으로 화엄경을 공부할 예정입니다.



보안스님

### 현지인 포교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호주인들은 명상과 교리를 통해 불교를 받 아들이고 있고 특히 태국불교를 좋아합니 다. 저는 시드니 교도소에서 재소자들을 만 나면서 얻은 생각을 가지고 명상시간을 만 들어 지역신문에 공고를 내어 현지인 포교 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매주 직접 불상을 모시고 교도소를 매주 방문하여 법회를 보 고 있습니다. 중국 절과 함께 공원을 빌려 서 연등, 합장주, 김치 만들기 등 문화행사 를 3년째 하고 있습니다. 호주인들은 한 마 디를 하면 그대로 받아들여서 오히려 포교 하기가 수월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 가 포교에 큰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 앞으로 계획은요?

별다른 계획이 없어요. 그냥 할 수 있는 것 을 하고 사는 것이지요. 특별히 바라는 것 이 있다면 인연이 된다면 언제나 누구나 와 서 마음도 정리하고 쉬고 갈 수 있는 장소 를 세상에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대담 세계일화 편집장 진서스님

▼ 시드니 버우드 파크에서 부처님오신날 문화행사



## 미동부 해외특별교구, 2월 중무회의 열려

2월 7일 미동부 해외특별교구에서는 대 한불교조계종 국제불교학교 미국연수단 이 참관하는 가운데 중무회의가 있었다. 보 고 사항은 비영리단체 등록을 진행하고 있 으며, 은행 및 인터넷 전화를 개설했는데, 전화번호는 +1-212-574-4440(낮), +1-973-220-7100(밤)이다.

매년 회의는 중무회의의 4번, 총회 2번을 갖기로 했는데 중무회의가 끝나고 바로 총 회를 갖는다는 방침이다. 또한, 뉴욕불교 사원연합회와의 협조 관계, 회원 사찰간의 후원금 문제, 2012년 예산 집행에 대한 논 의(일반회계, 연등퍼레이드 비용, 청소년 불교문 화체협 경비 등), 맨하탄 퍼레이드 및 성지순 례에 대한 해외특별교구 사업계획에 관한 논의, 정관에 대한 의견, 주지 연수교육에 대한 현안 등을 논의하였다.

글 해외특별교구 헤린 사무처장

## 광저우 불광선원, 1,100년 역사를 간직한 운문사 여행

불원선사 열반 3주년 기념식



중국 광저우 불광선원 신도들이 주지 불심스님을 모시고 2월 20일 광동성에 있는 운문사를 참배했다. 이날 불광선원 앞에서 출발할 때는 날씨가 꽤 추웠지만 도착할 즈음에는 제법 풀려서 따뜻한 기 운 속에 참배할 수 있었다.

운문사는 당나라 말기 927년에 창건된 이래 광동을 중심으로 강서, 북건성에 이 르기까지 선의 종풍을 크게 떨쳤던 운문 종의 본사격인 절이다.

최근 복원된 사찰임에도 옛 멋을 고스 란히 간직하고 있었다. 사찰 입구 오른쪽 에는 신도들의 숙소가 있고 벽에는 초조 달마스님으로부터 6조 혜능스님까지 선 사들의 사진과 약력을 써 넣은 액자를 걸 어놓았다. 운문사 안으로 들어가니 마침 큰 법회가 열리고 있었다. 불원선사 열반 3주년과 이를 기념하기 위해 새로 지은 건물의 완공을 축하하는 날이었다.

불원선사는 1982년부터 운문사 복원

을 시작해 운문사가 지금의 모습을 갖추 고 수행도량으로서의 면모를 일신케 한 분이다. 운문사의 주지와 방장을 겸하였 는데 문화혁명 중 남화사에 보존된 육조 혜능의 영골이 훼손위기에 처하자 위험 을 무릅쓰고 구룡천 뒤의 거북 아래에 묻 어 보존했다고 한다. 평상시에 일체의 말 을 하지 않으셨다 하고 선이 무엇이나는 방문객의 질문에 "선은 말로써 할 수 없 는 것 그 자체가 선이니 말에서 선을 찾지 말라"고 필담으로 전하셨다고 한다. 또한 불원선사는 선농일치 정신을 고수, 차 만 드는 것 자체가 선의 요체라고 설파하면 서 광동성의 다선문화를 주도하였다고 한다.

이날 불광선원 신도들은 불원스님의 일대기를 영상으로 보았으며 중국불교를 하나로 통합하고 평소 '인천안목'을 주 창했던 분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광저우 불광선원 +86-20-8753-7395

## 다문화자녀합창단, 호주 정법사 방문 공연

대한민국 최초의 다문화 자녀합창단, 레인보우가 호주의 정법사(회주 기후스님) 등으로 해외 첫 공연을 다녀왔다. 3년 남짓 된 레인보우가 그동안 국내외 굵직굵직한 무대를 섭렵하고 해외의 다문화 견문과 그곳에서의 공연경험을 쌓으려 나선 것이다. 재정적인 문제로 인한 인원수 15명 제한을 빼고는 모두가 다 훌륭한 기습 벽찬 나날이었다. 오페라하우스 앞에서의 거리공연도 색달랐고, 주립미술관 내에서 그림들과 함께 한 공연을 비롯해, 한인교회, 정법사, 캄프공립학교 등 서로 다른 장소에서 그들과 만나면서 우리의 음악을 뽐냈다. 특히 불교에 대한 해외 포교가 약한 먼 호주에서 만난 사찰은 더욱 반가웠다. 잔디마당의 탑, 법당 안의 부처님과 보살상들, 곱게 놓여진 법당 안의 좌복들, 공양주보살님들이 만든 나물반찬과 시루떡, 그 하나하나가 호주에서는 정겹게 시야를 꽉 채울 만했다. 부처님 앞에서 아이들은 세계전통의상을 입고 노래를 불렀다. 각 지방의 아리랑을 한데 모은 아리랑메들리로 시작한 아이들의 화음은 그들의 마음을 적셔놓았으리라. 정식 무대도 아니고 그리 넓지도 않은 회주스님의 법상 옆에서 아이들은 안무도 무난히 해내었다.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고향생각이 났을까? 합창단원들과 비슷한 또래인 어린 2세, 3세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모두가 열심히 쳐다보며 저마다의 생각들에 젖어드는 모습이였다. 곱게 붓글씨로 안부와 발원을 담은 작은 한지와 지폐 한 장씩을 접어 단원들과 스랍들 모두에게 전해주시는 회주스님의 따뜻한 마음이 감동으로 잔잔히 젖어들었다.

레인보우 이 아이들은 이제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볼 것이다. 그리고 더 크고 밝은 희망의 불씨를 키울 것이다. 호주에서의 이 짧은 경험은 이들에게 영원토록 간직할 추억거리로 자리 잡을 것이 분명하다. 레인보우의 고운 빛깔을 그대로 간직하며 곁에 곁게 자라나길 바란다.

글\_ 서울해비치다문화가족교육센터장 겸 레인보우합창단장 이현정 / 사진제공\_ 애니타임투어

## 시카고 불타사, 전통무용으로 한국문화 선양

2012년 1월 13일 시카고 리처드 데일리 센터(시카고시청)에서 '미주 한인의 날' 기념행사가 개최되었다. 본 행사에 시카고 불타사(주지 현성스님) 불타예술단 어린이팀이 초청되었다. 예술단은 참석한 미주 시카고

한인 동포뿐만 아니라 미국인들에게 대한민국의 전통무용 '봄타령'을 멋들어지게 선보여 많은 박수갈채를 받았다.

글\_ 불타사 흥보담당 용담거사  
시카고 불타사 +1-773-286-1551



## 워싱턴 서미사, 아시아태평양 문화행사 참가

2월 11일에는 '아시아태평양문화센터'가 주관하는 '제14회 아시아태평양 새해 축제'가 미국 워싱턴 주 타코마 돔에서 열렸다. 이 축제는 비영리 단체인 아시아태평양문화센터가 지역의 아시아문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여는 행사로, 한국과 중국, 일본 등 10개 민족의 전통 민속팀이 출전하여 춤과 음악 및 다른 볼거리 등을 선

보이며 8,000여 명이 모여 축제를 즐긴다. 이번 행사에 미국 서미사(묘회 보살님과 국제포교사 동참)에서는 연꽃등을 준비하여 보여주고 등 만들기를 가르쳐주었다. 더불어 불교와 연꽃등과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주었고 또 부처님 오신날 연등행사에 대하여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부처님 말씀 중 한 마디라도 인연이 되어 불교에 관심을 갖고 불자가 되기를 바라면서, 모두가 행복한 불국토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진행하였다. 끝으로 이 작은 불씨가 부처님과의 인연이 되기를 기원한다.

글\_ 국제포교사 법화성  
cafe.daum.net/seumisa



## 기고 | 오uckland 보리사, 관세음보살님은 오늘도 그 자리에서...

한국에서의 생활도 녹록하지만은 않지만 해외에서 포교 활동을 하며 산다는 것은 몇 곱절은 어렵고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한국불교의 세계화를 위한 걸음들이기에 묵묵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0일 보리사에 큰 물난리가 나서 또 다른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한국에서도 만나기 어려운 홍수를 미국 시네 중앙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후부터 갑자기 내리기 시작한 비로 화장실에서 물이 역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5년간 세 번이나 물난리를 경험했기에 신속히 처리를 하였는데, 계속 올라오는 물을 퍼 나르기에는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바로 집 주인에게 이 사실을 알렸지만 속수무책이었고, 2시간이 훨씬 지난 다음에야 수습에 나서는 미국의 정부 시스템은 피해를 가속화시켰습니다. 국제승가교육원 대중스님들과 긴급히 달려온 청년회(타래) 회원들, 한국문화학교 선생님들까지 모두가 오수물을 퍼냈지만 계속해서 밀려들어오는 물을 감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물과의 힘겨운 투쟁을 2시간여 하고 나니 모두가 지쳐 있었습니다. 법당으로 들어간 물은 마치 바다가 물침대처럼 웅글거리고 화장실에서는 계속해서 검은 물이 올라오고 부엌에서도 물이 역류해서 마루와 바닥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물에 약한 마루는 모두 뒤틀렸습니다. 정확한 원인은 외부로 흘러나가는 하수도가 급하게 내리는 물을 감당하지 못해 막힌 것이라 합니다. 집주인은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책임은 오uckland 시한테 있다고 하는데 월세를 내고 사는 입장에서 주인에게 화를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난리 세 번에 도인이 다 된 줄 알았는데 아직도 물 빠진 법당과 악취가 있는 마룻바닥을 보고 있노라면 이민 생활의 애환이 느껴집니다. 교통도 편리하고 많은 애환을 간직하여 정들어 살던 이 오uckland 보리사! 이번 물난리에 쌓아놓은 탑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다시는 이런 물난리는 겪고 싶지 않는데..... 근본 해결 방법은 없는 것인가? 보리사 도량 불사의 원력이 다시금 샘솟는 중입니다. 화주 시주 공력으로 보리사 도량불사 원력을 세워 봅니다. 나무아미타불

글\_ 보리사 주지 형전스님 / www.borisa.org



2011년 한국에 왔을 때 KBIN 대표 정법스님과의 미국 내 포교 현안에 대해 이야기하던 모습

## 대한불교조계종 미동부 해외특별교구, 2012년 인도·네팔 부처님 성지순례 참가자 모집

지난해에 출범한 미동부 해외특별교구(교구장 휘광스님)는 석가모니가 태어난 네팔의 룸비니를 비롯해 불교의 4대 성지로 불리는 지역을 직접 찾아 부처님의 생애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는다. 부처님 탄생지인 룸비니 동산을 비롯하여 석가모니가 처음으로 설법을 전한 초전법륜지 사르나트(녹야원)와 진리를 깨달은 득도지 부다가야, 열반지 쿠시나가라 등 4대 성지를 찾아 떠나는 성지순례이다. 휘광스님(뉴욕불광선원)은 "4대 성지는 물론 인도와 네팔에 있는 불교문화 유적지를 둘러보고 불자로서의 신심을 키우기 위한 자리"라고 말했다. 이번 순례에는 미동부교구장 휘광스님과 총무국장 문종스님이 함께 한다.

- 기간 : 2012년 10월 18일 ~ 10월 30일(12박 13일)
- 비용 : \$3,000.00(비자비용 불포함)
- 문의 및 접수 : 대한불교조계종 미동부 해외특별교구 +1-212-574-4440(오후 2시까지)
- 담당자 : 여래심 +1-201-895-1459

# wisdom2.0대회, 실리콘벨리에서 선을 논하다 - 잭 콘필드 [2012. 2. 27]

**미국, 실리콘벨리** - 위즈덤2.0은 다양한 영역에서 지혜와 삶을 탐구하는 단체이다. 실리콘벨리에서 wisdom2.0대회가 2월에 열렸다. 대회는 자비에 관한 나의 설법으로 시작됐다.

첫날은 에크하르트 톨레가 페이스북, 구글, 트위터, 이베이 등의 창립자와 고위 관

계자 600명과 인터넷 시청자 250,000명에 게 마음의 광대함과 침묵을 주제로 선(禪)을 지도했다. 이 대회의 발기자이자 진행자인 소렌 고다머의 개회 인사말이 있는 이후부터 계속 따뜻한 느낌과 에너지가 대회를 감쌌다. 대회 기간 중 질문이 오갔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손을 들어 참여했다. 이로써

그들이 이미 요가와 참선 등 수행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과학기술자들은 마음 수행을 일상의 삶과 회사생활에서 어떻게 실천해갈 것인가에 대해 토론했다.

존 카바진, 조안 헨리팩스, 댄 시걸, 선론, 톱텐 징파 린포체 등 정신지도자와의 만남 시간에는 하나로 연결된 세계의 성장

과 가능성에 대해 프리젠테이션이 있었다. 마음에 큰 의문들이 떠올랐다. 아랍에 봄이 오게 했고 수십억의 사람들을 연결케 한 이 기술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면 세계적 공감과 사회적 책임, 평화를 더 진작시킬 수 있을까? 기술문명에 지나치게 노출된 아이들과 막강한 힘을 행사하는 기술권력자에 드리운 그림자를 어떻게 거두어 낼 수 있을까? 인류는 정보기술 네트워크와 그 생산물들을 마음을 닦는 데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과학기술에 비전을 가지고 있는 새로운 세대들은 이번 대회에서 소셜 네트워크와 인터넷을 사용하여 세계 사람들뿐만 아니라 학교, 의학, 치유, 환경, 정치, 사업에도 소통의 확장고 그를 통한 자비사상의 실천에 대해 얘기했다.

wisdom2.0대회에서 기술과 지혜의 결합은 이미 시작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창조적인 대화로 엄청난 희망도 갖게 되었다.

www.wisdom2summit.com

▼ (좌) 구글 본사 앞에서 폐막식 (우) wisdom2.0대회



## 티베트 지지자들이 국제사회의 개입을 호소

- 붓다다르마 [2012. 2]

**미국, 뉴욕** - 2월 25일 세 명의 티베트인들이 뉴욕에 있는 UN건물 앞에서 티베트청년회의 이름으로 '티베트를 위한 무기한 단식'을 선언하는 편지를 낭독했다.

"티베트청년회는 세계 정부와 UN이 고

통 받고 있는 티베트인들의 외침을 귀 기울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티베트에서 격렬하게 타오르고 있는 불이 꺼질 수 있도록 즉각적 조처를 취하지 않는다면 점점 증가하는 티베트인들의 죽음에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한편, 인도에서도 32명으로 구성된 티베트 망명정부 대표단이 뉴델리에 있는 UN과 유럽연합까지 거리를 행진했고 이어 중국의 티베트인들에 대한 잔학행위를 중단하라는 협서를 제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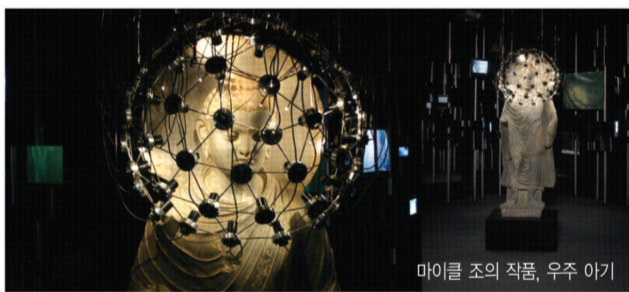
www.thebuddhadharma.com



## 아시아소사이어티 홍콩 센터, 개관기념전시회

- 뉴욕타임즈 [2012. 2. 24]

**홍콩** - 아시아소사이어티는 아시아와 미국 간 상호 이해와 동반자 관계를 증진하는 데 목적을 둔 교육기관이다. 2월 9일 개관



마이클 조의 작품, 우주 아기

이러티 홍콩 센터의 개관 기념 전시회가 5월 20일까지 "마음 바꾸기: 불교예술"을 주제로 열린다.

록펠러재단 소유 아시아 예술품 13점과 현대 작품 6점이 전시됐으며 작품을 통해 불교의 과거와 현재를 볼 수 있도록 기획됐다. 선정된 작품들은 570년 중국 대리석 보살상에서부터 18세기 조선 족자까지 불교의 진화와 특히 상징물과 믿음이 어떻게 문화적 국가적 장벽을 넘을 수 있었는지를 추적해 볼 수 있게 해준다.

18세기 태국에서 조각된 미륵청동불상은 소년 같으면서도 젊은 다비드상과 같은 가녀린 모습을 하고 있었다. 관객들이 가장 좋아했던 작품은 "아미다 노라이"라는 편백나무로 조각된 13세기 일본 부처님이

다. 가사 위의 금철은 흔적만 남아 있지만 밝은 색깔의 크리스탈로 장식된 머리와 까만색 크리스탈이 박힌 눈은 관객들을 사로잡았다.

가장 강렬한 인상을 준 것은 한국계 미국인인 마이클 조가 고대 유적을 사용해 만든 '우주 아기'라는 현대 작품이다. '우주 아기'는 록펠러재단이 소장한 2~3세기 간다라 불상을 빌려와 불두에다 50개의 감시 카메라를 철사로 연결해 만든 설치물을 씌워 만든 작품이다. 아시아소사이어티 박물관 관장 메리사 추는 "전통예술품은 새로운 것을 보여주는 데 초점을 맞춘 반면 현대 예술품은 기발한 아이디어를 찾아내 보여주려 했다"고 말했다.

www.asiasociety.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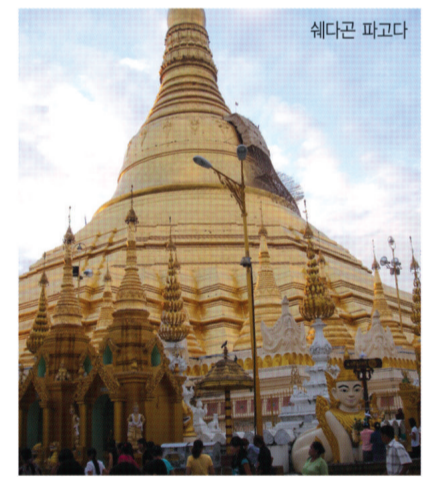
## 자유의 서막을 알린 쉐다곤 파고다 대축제

- AP [2012. 3]

**미얀마, 양곤** - 미얀마 불교의 위대한 상징, 황금빛 찬란한 쉐다곤 파고다에서 대축제가 3월에 열렸다. 수천 명이 모여 20년 동안 군사정부에 의해 금지되었던 축제의 귀환을 축하하고 정치와 미래의 희망에 대해 이야기했다. 쉐다곤 파고다는 2007년 스님들이 이끈 반정부시위인 샤프란운동 참여자들의 집결장소였다. 1988년 아웅산 수처 여사도 쉐다곤 파고다의 황금탑 앞에서 수백만 명의 대중에게 연설하여 민주화의 상징으로서의 행보를 시작한 곳이다.

축제 기간 동안 쉐다곤 파고다는 란, 다알리아 등 수많은 꽃으로 장식됐다. 축제의 상을 입은 수천의 사람들이 절의 대리석 현관에 행진하는 것을 시작으로 절 곳곳의 모든 종들이 울려 퍼졌고 수백 명의 스님들이 독경했다. 그리고 종교부 장관 민트 마웅이 참석해 기도했다. 12명의 스님들이 한 조를 이루어 축제가 끝난 3월7일 밤까지 끊임 없이 독경을 했다. 절 바깥에서는 전

통 인형극과 춤 공연이 있었고 상인들이 수제품들과 음식을 팔았다. 축제에 왔던 한 참가자는 "불교국가에서 정부가 이렇게 중요한 축제를 20년이나 못하게 했다는 것은 정말 부끄럽고 슬픈 일이다. 이제야 미얀마에 변화가 오고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쉐다곤 파고다

### 국제불교 단신

#### ◆ 84000 reading room, 티베트 경전번역 프로젝트 출범

**84000** 종파르 켄찌 린포체가 티베트 경전번역 프로젝트인 84000 reading room 프로젝트를 공식 출범했다. 리딩룸은 인터넷에서 읽고 내려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로 번역물을 올려 놓았다. 또한 티베트어, 산스크리트어, 영어로 용어와 주제 검색을 할 수 있도록 독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http://read.84000.co/>

#### ◆ 제3차 세계불교포럼, 중국 홍콩서 개최

2012년 4월 25일부터 27일까지 중국불교협회와 홍콩불교연합회는 공동으로 중국 홍콩 일대에서 전세계 50여 개국 불교지도자와 학자 등을 초청하여 세계평화를 주제로 '제3차 세계불교포럼'을 개최한다.

#### ◆ Wisdom 2.0 Technology Faire가 샌프란시스코에서 4월 9일 열린다

Wisdom 2.0 Business! 위즈덤 2.0 비즈니스가 5월 11일과 12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어떻게 혁신과 복지를 이루어내고, 창조적인 마음으로 사업할 것인가에 대해 탐구한다.

집중조명

# 위대한 정진의 화신 파유토 스님

## - 전자책으로 대중에게 다가간다

파유토(P.A. Payutto 혹은 Phra Bhramagunabhom) 스님은 학식이 높고 다작을 하는 작가로 유명하다. 스님은 태국 불교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학자들 가운데 한 분이다. 스님이 저술한 『붓다 담마(Buddha Dhamma)』는 팔리삼장의 방대한 자료를 인용, 자연의 이치와 불교교리를 엮어 부처님의 뜻을 그대로 전달한 불후의 명작으로 인정받고 있다. 파유토 스님은 불교에서 여성의 위치, 불교와 환경의 관계 등 불교와 관련된 광범위한 주제에 대하여 설법하고 책을 쓰고 있다. 이번 집중조명에서는 병약한 노구를 이끌면서도 정진의 끈을 놓지 않는 파유토 스님의 삶에 대해 살펴본다.

파유토 스님은 1938년 삼란과 아라양콘 사이의 5번째 아들로 태국 수판부리에서 태어났다. 스님은 수판부리에서 초등교육을 받았다. 유년시절 스님은 몸이 허약하여 많은 질병에 수술도 받았고 현재까지도 건강치 못한 상태이다. 정식 학교교육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병약했기 때문에 1950년 방콕에서 중학교를 겨우 마친 스님은 고향인 수탄부리로 돌아가 체력을 요하는 정식학교 대신 절에 들어가 가족의 지원 아래 행자가 되어 팔리어와 위빠사나를 배웠다. 그 후 아버지의 격려로 방콕에 있는 절로 옮겨

갔고 사미기간 동안 팔리어 최고단계까지 공부를 했으며 이를 인정받아 왕실의 주관 하에 1962년 비구계를 받았다. 이때 '불퇴전의 정진'을 뜻하는 파유토라는 법명을 받았다. 스님은 1962년 출라롱콘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교수 자격을 받은 이후 파유토 스님은 출라롱콘 대학에서 부학장으로 10년 간 재직했다. 이때 스님은 불교를 현대 사회문제에 적용함으로써 승가교육을 현대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1973년 프라 피렌 절의 부주지로 임명되기도 하였으나 3년 후 학문에 전념코자 사직했다. 이후 스님은 많은 책과 글을 썼고 태국 내 여러 대학과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 하버드 대학 등에서도 강의했다. 스님은 1994년 유네스코가 수여하는 평화교육 부문상을 받았다. 스님은 교육이 인간 발전의 열쇠라고 주장한다. 교육은 삼장의 계·정·혜 삼학을 통해 마음을 닦고 지혜를 성취하여 진리를 아는 것을 말한다. 스님은 언제나 불교 교육의 목적은 삶과 죽음의 속박에서 벗어나 해탈에 이르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스님은 불교와 사회, 과학, 수행에 관한 책을 집필했다. 스님은 책들이 처음 출간된 이후에도 계속 수정 보완하고 있는데, 유명한 『붓다 담마』도 초



▼ (좌)파유토 스님이 쓰신 책들 (우)파유토 스님 박물관 내부모습

판 이후 300쪽이 더해져 지금은 1,500쪽에 달하고 있다. 이 책들은 [www.payutto.org](http://www.payutto.org)에서 검색할 수 있다. 또한 『세계문명 속 불교 연대기』는 100,000권을 제작하여 보시했다. 이 책은 2000년 전 부처님께서 불교를 전파했을 당시 인도의 사회 문화적 환경뿐만 아니라 불교가 인도 사회와 문명에 끼친 영향과 변화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스님은 항상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무상한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일러주며, 중도의 지혜를 어떻게 실천할지에 대해 이야기한다.

현재 파유토 스님은 74세이다. 지난 4년 동안 노환으로 대중 설법도 못하고 불자들도 만나주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스님은 이 기간을 오히려 저술할 기회로 생각하고 책을 쓰는 데 더욱더 전념해서 20여

권을 써 냈다. 최근 제자들과 신도들이 모여 스님의 모든 저작물들을 전자책으로 출판하여 더 많은 대중들과 청년들이 접할 수 있게 하려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총 350여 권에 달하는 스님의 책들이 전자책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스님 자신도 그동안 컴퓨터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책을 쓰고 편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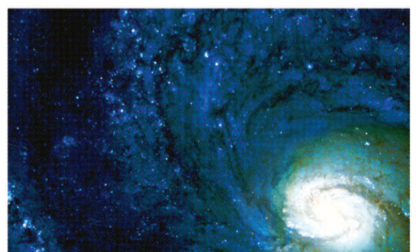
파유토 스님은 어렸을 때부터 심장병, 소화불량, 신장결석 등 갖가지 병에 시달렸으나 평생의 삶을 통해 팔리삼장의 정통성을 지켜내는 데 헌신하고 있으며 팔리 경장에 대한 깊은 학식으로 태국의 승가를 지켜내고 있고 삼장에 대한 대중의 무지를 벗겨주고 있다. 스님은 병약한 몸으로도 불교에 대한 깊은 믿음과 위대한 정진의 화신임을 증명하고 있다.

편집부

## 불교, 우주 그리고 진화

- John Stanley and David Loy, huffington post [2012. 2. 26]

불교 우주론에서 볼 때 우주의 생명은 순환한다. 생·주·이·멸, 태어나서 머물다가 변하고 소멸하는 기간을 지나 새 우주가 허공에서 찬란하게 태어난다. 저 허공은 칼라차크라 탄트라(시간의 수레바퀴)에 의하면 '시작 없는 우주의식'과 분리될 수 없다. 그러나 기계론적인 과학은 주장했다. 19세기까지 물질은 의식과 전혀 관계없는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의 경험도 기계론적인 우주관에 근거했다. 이러한 전제는 과학, 기계공학의 엄청난 발전에 아무런 장애도 되지 않았다. 과학계와 사회에서 이러한 믿음 체계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양자물리학에서 물질이 에너지와 어떤 과정의 산물임을 증명했어도 우리는 이것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려 하지 않는다. 노벨상 수상자인 리처드 페이만은 굉장한 예지력을 보여주는 양자전자역학 이론을 개발했다. 이 이론은 가상 입자, 전자, 광자가 영점장(zero-point field, 진공 상태)에서 생겼다 소멸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우주가 빛나는 허공에서 비롯되었고 허공 자체가 의식의 장이라고 묘사하는 불교의 우주관과



놀랄 만큼 비슷하다. 우리는 찰스 다윈이 처음 지구 위 생명의 시초를 발견함으로써 진화가 진행되는 엄청난 과정을 목격할 수 있었다. 지구 생명의 시원에 관한 진실이 무엇인가라는 물음은 말할 것도 없이 우리가 생명 없는 기계가 아닌 진화하는 우주에 산다는 이치를 반영한다. 토머스 베리가 지적했듯 우리가 과학적 물질주의에 의해 분열됐던 정신과 물질의 근원적 일원성을 되찾는다면 우주에 관한 과학적인 이야기들도 또한 새롭고 성스러운 이야기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생물학적 진화는 불교 우주론에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자연의 역사와 정신의 역사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다. 시작 없는 의식인 빛나는 허공은 진화하는 우주를 낳았고 끝없는 형태를 지닌 것들은 너무나 아름답게 진화하고 있다. 지구의 생명들은 소멸과 저자생존의 특별한 도전을 통해 함께 진화해왔다. 생물학자와 지구 과학자들은 2050년쯤에 지구 식물과 동물의 4분의 1이 사라질 것이라며 진화에 위기가 올 것이라고 한다.

현재의 소비 지향적 경제 활동은 지구 모든 생명이나 기후문제를 베풀 끝으로 몰고 있으면서도 우리에게 신경 쓰지 말라고 한다. 그러나 걱정스러운 의문이 계속 떠오른다. 왜 우리는 파국을 초래하는 진화를 무릅쓰는가? 우리는 여기에서 생존하고 번영하려는 것일까? 지구는 왜 생명을 부양토록 진화해온 걸까?

## 스님이 되어보는 대학 수업

- AP [2012. 2. 12]

신나는 대학생활을 기대한다고요? 그렇다면 저스틴 맥다니엘 교수님의 수업을 수강하면 안된다. 펜실베이니아 대학 '사찰생활과 극기' 수업은 스님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체험할 수 있는 수업이다. 학기 중 학생들은 커피, 육체적 접촉, 몇 가지 음식, 침단기기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알람도 없이 새벽 5시면 일어나야 한다. 이는 다니엘 교수가 학생들이 좀 더 세밀하게 깨어 있는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수업이다. "그 동안 학생들이 이 수업을 꽤 진지하게 듣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수행은 옷을 바꿔 입는 것에서 시작한다. 남학생은 흰색, 여학생은 검은색을 입고 수업시간에는 남녀 따로따로 앉아야 한다. 화장, 장신구, 컴퓨터도 금지되며 필기는 연필과 종이로만 할 수 있다. 휴대폰도 이때 일도 쓸 수 없다. 수업은 아시아 종교를 연구한 다니엘 교수가 20년 전 태국과 라오스에서 스님으로 수행을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지도한다. 급기사항은 조금씩 적용되는데 3월 중순부터는 가공되지 않은 자연 음식을 해가 있을 때만 먹을 수 있고, 먹는 중에는 말을 해서도 안 된다. 악수, 포옹하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으며 눈도 오래 맞추면 안 된다. 조명 이외의 어떤 전기 기구도 사용금지이다. 다른 수업을 위해 책을 읽을



▼ 펜실베이니아 학생들

수 있지만 바깥세상에서 들어오는 신문은 읽을 수 없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 수업을 듣는 걸까? 교수가 과제물이나 시험을 요구하지 않아서일까? 2학년인 간호학과 메들린 케이서는 그건 오해라고 말한다. "사실은 학점이 순전히 성실성과 참석률에 근거해 나오기 때문에 더 힘들어요"라고 하면서 이 수업을 통해 앞으로 환자들을 잘 이해하고 좀 더 잘 돌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1학년인 레이첼은 먼저 자신을 안다 음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강신청을 했다고 한다. 100여 명의 수강신청자 중 진정으로 이 수업의 목적을 이해하는 사람을 면담으로 가려내어 17명을 받아들였다. 탈락자 중에는 페이스북 없이 생활할 수 없다고 하는 학생, 어머니랑 통화하지 않고는 하루도 지낼 수 없다는 학생도 있었다.

다니엘 교수는 자신이 학생들의 생활방식이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아니라면서 단지 학생들이 수업을 통해서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 대해 항상 깨어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구미 꿈을이루는사람들 다문화 정책토론회 개최 다문화 모자복지시설 절실히 필요

지난 2월 21일 구미 88올림픽기념관에 서 꿈을이루는사람들(대표 진오스님) 주최로 2012 다문화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다문화·한부모 가족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구미1대학 아동복지학과 시옥진 학과장, 경북대 사회복지학과 성희자 교수, 전국다문화가족지원센터협회 박충환 회장,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이영석 교육인재개발실장, 죽향쉼터 이정순 시설장, 행복가족심리상담센터 이지형 센터장 등 관련 전문가가 모여 토론회를 진행했다.

토론에 앞서 진오스님은 "우리 사회는 국내 이주민 130만 시대를 맞아 국제결혼

증가와 이혼을 새로운 사회현상으로 겪고 있다. 특히 혼자 아이를 키워야 하는 다문화·한부모 모자가족을 정책적으로 어떻게 지원해야 효과적이지 함께 고민하고자 정책 토론회를 준비했다"며 "본 토론회의 취지와 결과들이 나비효과로 퍼져나가 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오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시옥진 교수는 토론 발제에서 "아동의 양육 부담이 높아지면서 한부모 가정의 이주여성 가장들은 자녀를 출신국가에 데려다 놓고 한국으로 귀국하여 생계를 책임지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며 "이주여성

생계보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한국인으로 뿌리 내려 안정적인 환경에서 다문화 아동을 양육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지원해야 한다"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 가족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을 비판했다. 아울러 정부는 다문화·한부모 가족에 대해 관심을 갖고 법과 제도 정비, 전담기구 설치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는 다문화·모자복지시설의 필요성(성희자 교수), 국제결혼

이혼증가와 한부모 가족 지원방향(신숙재, 다문화·한부모 정책의 방향 모색(이영석), 다문화 이혼여성의 우울증과 심리치료(이지형), 다문화 한부모 이주여성 대상설문조사 및 사례 발표(이정순) 등 열띤 토론의 장이 벌어졌다.

또한 이날 다문화·한부모 가족 이주 여성이 직접 나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다문화 모자복지시설의 필요성과 시급함을 토로하였다.

구미 꿈을이루는사람들 054-458-0755



구미 꿈을이루는사람들 다문화 정책토론회 열띤 토론이 벌어지고 있다.

## 따뜻한 재능 기부, 다문화가정 자녀들에게 큰 도움

오산 행복한이주민센터와 성호고등학교 MOU 체결

2011년 7월 기준 행정안전부의 외국인 주민현황에 따르면 오산시 내 다문화 가정 자녀들은 초등학교 64.8%, 중학교 40%의 낮은 재학률을 보이고 있어 이들이 의무교육제도에서 이탈하고 있는 모습을 확연히 알 수 있다. 이는 오산시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 자녀의 의무교육 현실로도 해석할 수 있다.

지난 2월 25일 오산 행복한이주민센터(상임대표 정호스님)와 오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이병희)는 오산성호고등학교(교장 김승곤)와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습과 정서발달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학

습지도와 피아노 교실을 여는 등 주말학교 운영을 시작했다.

오산 행복한이주민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자녀 주말학교'에 성호고등학교 학생들이 참여하여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학습지도를 돕고 주말학교 프로그램을 함께 하는 것은 지역사회의 모범적 사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산시청 가족 여성과 다문화 담당 공무원 황수영씨가 재능기부를 하고 있으며, 성호고등학교 사서 선생님과 학생들이 행복한이주민센터 다문화어린이도서관 운영을 돕고 있다.

오산 행복한이주민센터 031-374-5554



성호고등학교 사서선생님과 학생들이 다문화가정 아이들에게 학습지도를 하고 있다.

## 화재로 사망한 스리랑카 부부의 극량왕생 기원 추모제 봉행

지난 2월 28일 김포마하이주민지원센터(센터장 지관스님)는 김포 뉴고려병원 장례식장에서 2월 26일 오후 6시경 경기 김포시 양촌면 구래리 컨테이너 임시 거주지에서 화재로 사망한 스리랑카 부부 만돌라씨와 수빈나씨를 위한 추모식을 마련하였다. 이날 추모식은 티샤 위제라트네 주한스리랑카 대사, 용화사 총무 덕성스님, 스리랑카 이주노동자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마하보디사 와치짜라 스님의 집전으로 엄숙하게 진행되었다. 이후 일요일인 3월 5일

에는 만돌라씨 부부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 김포 해병대 청룡부대 '청룡사' 법당에서 천도재를 봉행하였다. 이날 천도재에는 해병대 청룡부대 실원스님이 참석하여 위로의 말을 전하였으며, 만돌라씨 부부의 극량왕생을 기원하였다.

만돌라씨 부부는 신호기 박스와 철제가 공품을 만드는 공장에서 근무하였으며 20㎡ 규모의 컨테이너 박스에서 거주하다가 누전으로 인한 화재로 참변을 당했다. 공장이 쉬는 휴일 오후에 불이 났고 컨테이너 박스가 다른 숙소와 따로 떨어져 있어 발견이 어려웠다고 김포소방서가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마주협 공동대표 진오스님은 유족의 안타까움을 전해 듣고 성금을 모아 유족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며 이런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포 마하이주민지원센터 031-8543-7605



장례식장에서 만돌라씨 부부 추모식을 봉행하는 모습

## 보쓰와 헤윙보우를 먹는 몽골전통 명절 차강사르(Tsagaan Sar)

지난 2월 26일 동대문 몽골법당(주지 바트보양)에서는 차강사르(Tsagaan sar)를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다. 차강사르는 음력 1월 1일로 한국의 설날과 같은 큰 명절이다. 몽골법당 주지 바트보양 스님의 집전으로 이주민 80여 명이 모여 차강사르를 기념하는 법회를 성대하게 열었다. 몽골에서는 백색이 길상, 풍부, 순결을 의미하기 때문에 하얀 달이라는 뜻의 차강사르는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차강사르는 한해를 시작하는 날이자 최대의 길일이며 한국의 설처럼 웃어른을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는 날이기도 하다. 한국 설에 떡국을 먹듯 몽골에서는 보쓰라는 만두처럼 생긴 전통 음식을 먹는다. 보쓰는 양고기와 양파만 넣어 만든 만두로 차강사르가 있기 한 두달 전부터 준비하며 평균 집마다 500~1,000개를 만들어 손님이 오실 때마다 대접한다. 보쓰와 함께 헤윙보우라고 하는 발바닥 모양의 과자를 싸아 두고 함께 나눠 먹는다. 헤윙보

우는 흡수로 씹아두는데 그 이유는 행복/불행이 반복되지만 마지막에 행복으로 끝을 맺기 위해서라고 한다.

멀리 천안에서 법당까지 찾아온 몽골 결혼이민여성인 아유나씨(42)는 "딸 아이에게 몽골의 전통 풍습과 문화를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주고 싶어서 왔다. 몽골 설이 얼마나 재미있고 좋은지 경험해보면 엄마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믿는다."라고 말했다.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 02-720-7095



설날 몽골이주민들과 스님이 서로 새해인사를 나누고 수태차를 나누어 마시고 있다. 가운데 놓여있는 과자가 헤윙보우이다.